

“예수님의 제자 된 목회자”

1월 26~28일 '2026 목회사관학교' 개최
국내외 온누리교회 목회자 360여 명 참석

2026 온누리교회 목회사관학교가 '나를 따르라'를 주제로 1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오크밸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내외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협력 교회, 온누리교회 출신 담임목회자, 선교사 등 총 36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목회사관학교에서는 공동체 성경읽기, 주제 강의, 소그룹 나눔, 특강, 기도회, 패널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첫날 주제 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공동체성경읽기'를 주제로 했다. 이 위임목사는 “아무리 탁월하고 감동적인 설교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다”면서 “말씀 자체보다 설교에 익숙해진 현실을 돌아보며 설교 중심 예배에 대한 건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배 안에서 '공동체성경읽기'를 시작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바꿨기다름 돕는 목회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목회사관학교 첫날 오후에는 마크최 목사 '나의 목회 이야기', 조호영 목사 '나의 사역 이야기', 목회자 특순, 박종길 목사 '교역자의 경건생활' 특강, 소그룹 나눔 및 발표, 기도회, 온누리 어워즈 등이 이어졌다.

온누리 어워즈에서는 이한규 목사(맨인블랙상: 최다 장례사역 교역자), 전진 목사(강대상: 우수 설교 교역자), 김용산 목사(온누리루키상: 우수 적응 교역자), 배운주 전도사(전파상: 전임 같은 파트 교역자), 김재승 목사(기쁨부음상: 최장거리 출퇴근 교역자)가 수상했다.

둘째 날에는 공동체성경읽기, 박신웅, 전현규 목사 '나의 목회 이야기', 이기훈, 이기원 목사 '나의 사역 이야기', 신국원 교수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적 비전' 주제 강의, 강부호 목사 '교역자의 기도생활' 특강, 소그룹 나눔 및 발표, 패널토의, 기도회, 온누리 어워즈 등이 이어졌다. 이날 온누리 어워즈에서는 30년 이상 근속한 목회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박종길(서빙고온누리교회), 강부호(양재온누리교회), 도육환(영종온누리교회), 이기훈(사회선교본부), 황종연(Acts29 비전빌리지) 목사가 수상했다.

셋째 날에는 공동체성경읽기, 최성민 목사 '나의 사역 이야기', 신무환 장로 '평신도의 세상살이로 나타내는 복음적 세계관' 주제 강의, 소그룹 나눔 및 발표, 폐회예배, 기도회 등을 했다. 폐회예배에서는 박종길 목사가 '다시 시작하라' (수



지난 1월 26~28일 열린 '2026 목회사관학교'.

17:14~18)를 주제로 설교했다. 박현식 목사(동경온누리교회)는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예수님을 따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우수진 전도사(서빙고 차세대)는 “공동체성경읽기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다”면서 “말씀을 잘 낭독하고 삶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교역자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목회사관학교는 2003년부터 시작된 온누리교회 목회자 수련회다. 국내외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비전과 목회 철학,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한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2026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을 한다.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 주도로 2월 18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주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부제는 '자기 부인의 제자도'이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실천사항은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중독과 무절제함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1주 차 '디

지털 디톡스: 내 손안의 우상을 내려놓다', 2주 차 '건강한 식습관: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3주 차 '생태 회복: 소유보다 나눔, 채움보다 비움', 4주 차 '바른 언어생활: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 5주 차 '절제와 성실: 윤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 6주 차 '겸손과 순종: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7주 차 '나를 따르라: 부활의 증인으로'가 주제다. 문의: 02-3215-3434

2월부터 예배순서 일부 개편

15분 전 찬양과 기도, 예배 중반 '공동체성경읽기'

2월부터 예배순서가 일부 개편된다. 15분 전부터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예외적으로 예배 전 찬양과 기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배 5분 전 진행하던 '공동체성경읽기'는 예배 중반에 한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표'를 따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성경 본문을 듣고

읽는다. 예배 시간은 변동 없다.

온누리성경읽기 진도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주일예배 공동체성경읽기(신약·시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성경읽기(구약·신약), 토요일과 일요일 개인성경읽기(잠언, 전도, 시편·구약)를 하던 1년 동안 성경일독을 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PASSION 2026'

차세대 파워웨이브 연합수련회 'PASSION 2026' (이하 패션집회) 2차 집회가 2월 1일(일)부터 3일(화)까지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을 주제로 열린다. 서빙고(1부), 양재(고등부), 남양주, 대전, 세종, 도곡, 양지, 인천, 평택, 서산온누리교회와 안산, 평택M센터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참가한다.

2차 패션집회에서는 개회예배, 저녁집회, 파워페스티벌, 주제 강의, 선택 강의, 폐회예배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주제 강의는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송비을 전도사(한티사역), 박위 형제(유튜브 위라클 채널 운영)가 한다. 선택 강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나를 찾다', '디자인,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언어'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문의: 02-3215-3521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서빙고, 양재 주간, 저녁반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을 운영한다. 예수제자학교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삶을 살도록 돕는 평신도 제자훈련이다.

서빙고 주간반은 2월 26일(목)부터 9월 22일(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시온홀에서 시작된다. 서빙고 저녁반은 2월 28일(토)부터 9월 19일(토)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시온홀에서 열린다.

양재 주간반은 2월 24일(화)부터 9월 22일(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온우홀에서 진행된다. 양재 저녁반은 2월 20일(금)부터 9월 19일(토)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온우홀에서 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나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0만 원(전도여행비 별도).

문의: 02-3215-3534

/ 홍하영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지만 정반대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즉 천둥번개와 같은 의미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므로 요한도 그러한 성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불같이 급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분노가 터지는 성격을 꾸짖는 의미로 이름을 붙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새로 지어 주시는 것은 현 상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장래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이 해석 원리를 적용하면,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현재 성격이 불같이 거칠지라도, 그 너머에 세상을 깨우는 우레 소리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미리 선포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의 성품이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았습니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과 열정의 사람

먼저 그는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부유한 미래를 포기합니다. 당시 ‘세베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그는 여러 어부를 고용하고, 배들을 소유한 선주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레위 지파 후손으로 당시 대제사장 가문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업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부친의 사업과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단호한 결정은 그들 안에 있는 때로는 불같이 급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중간이 없는 강직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박차고

야고보: 세상을 깨우는 우레의 아들

누가복음 9:51~56, 사도행전 12:1~3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화되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한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 자신의 야망과 독선으로 인해 위험한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세속적인 야망으로 위험한 불이 될 뻔 한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선발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차별로 인해 그들을 냉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불친절과 거절에 분노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려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불같은 성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불을 내려 멸망시켜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으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를 넣으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세상이 네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넘고 싶지 않은, 불을 내려 진멸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선교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과 뜻이 맞지 않으면 심판부터 생각하는 야고보의 열정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편협한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은 타인을 정죄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적대감에 대하여 동일한 적대감과 보복심으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열정은 때로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속적인 야망으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마 10:35-37). 그가 생각했던 영광의 자리는 세속적인 힘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고,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의 야망과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세속적인 야망,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오해를 통해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열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분노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영광의 자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끓어오르는 열정이 때로는 세속적인 야망에 휩쓸려 위험한 불이 될 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그의 꺼지지 않는 열정이 순교의 우렛소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우렛소리로 쓰임 받은 첫 번째 순교자

<사도행전> 12장 1~3절의 헤롯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입니다. 분봉왕과 같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 구체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가 보기에 반교회적 세력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불같은 열정으로 때로는 위험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그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순간도 함께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팍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체험들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야고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반교회적 세력이 가장 먼저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지만,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는 미워하셔서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셔서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짧은 순간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죽음의 세례를 함께 경험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 우편에 앉기를 원했지만, 첫 번째 순교자로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불같은 열정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깨우는 우렛소리가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깨우고, 안일했던 교회를 깨우고, 복음의 야성을 깨우는 우렛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으면 도리어 세상을 깨우는 우렛소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야고보와 비슷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열정이 세상을 깨우는 우렛소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지적 교만과 정욕에 휩쓸려 방황했습니다. 어머니가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쾌락과 쾌변을 따를 때 그는 마니교와 성적 타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열정은 세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우렛소리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어거스틴이 남긴 <고백록>을 비롯한 여러 문서가 없었더라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중세 시대가 아닌 짧은 시대를 살았던 어거스틴의 우리와 같은 생애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내 안에 끓어오르는 열정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한 열정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영광의 자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내 힘과 능력으로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불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파괴적일 수 있었던 불같은 열정을 우리의 아들다운 순교의 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야고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야고보가 우리의 아들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

어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불평등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상류층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부의 격차는 거의 언제나 불평등과 공정성의 문제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 누군가 경제적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말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경제에 존재하는 부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부의 불평등을 걱정하는 이유는 경제에 존재하는 전체 부의 양이 마치 하나의 체리파이처럼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인간의 노동, 창의성, 법적 보호, 제도, 아이디어, 정보, 기술이 결합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를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시장 체제에서는 부의 파이가 커진다. 파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람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안에서 자유와 기회를 가질 때 부를 창출한다. 사람들은 종종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던 것들을 큰 가치를 지닌 자원과 기술로 바꾼다. 예를 들어, 빛은 레이저로 바뀌었고, 모래는 광섬유 케이블과 컴퓨터 칩으로 바뀌었다. 인간은 혁신한다. 애플의 창립자였던故 스티브 잡스는 노숙자들에게서 아이폰을 훔친 게 아니다. 그는 아이폰을 발명했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부를 만들어 냈다. 파이가 커졌다. 스티브 잡스가 더 부유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가난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파이에 더한 부는 미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했다. 부는 창출될 수 있기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될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건강한 시장경제에서는 장기적으로 그 반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은 종종 참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표지이며, 우리의 다양한 선택과 재능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사회의 특징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거나 같은 노력이 같은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은 재능과 선택에서 매우 다양하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성격, 목표에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은 거의 돈이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일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은 위험하거나 지루하지만, 돈이 많이 되는 일을 선택한다. 또 어떤 사람은 급여는 적지만 안정적인 근무 시간을 선호한다. 자유로운 사회는 서로 다른 선택을 허용한다. 이러한 자유는 삶의 목적과 만족을 주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만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거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거나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경제적 결과를 완전히 평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 그런 시도가 성공한 적은 없다. 경제적 평등을 강제로 만들려는 정부들은 모두를 더 번영하게 만드는 대신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데에만 성공했다.

셋째, 불평등과 부의 격차에 집착하는 것은 빈곤이라는 진짜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

부 대신 건강을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더 부유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빈

곤을 줄이려는 노력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광범위한 기회와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애초에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는 문화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 결과를 강제로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 경제적 결과를 평준화해야 한다고 말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경제에 존재하는 부의 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종종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특징이며, 다양한 선택과 재능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불평등과 부의 격차에 집착하는 것은 빈곤이라는 진짜 문제에서 시선을 빼앗는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세속화

1962년, 미국에 무슨 일이?



노지준 장로
(온소망공동체)

1951년 뉴욕주 교육 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리젠트 기도문(R-egent’s Prayer)’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 기도문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뉴욕주 여러 공립학교에서 매일 수업 시작 전 교사가 학생들과 이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은 이 시간에 대한 참여 거부 선택권이 있었다.

1958년 뉴욕주의 뉴하이드파크 공립학교에서 Engel을 비롯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 수업의 공식적 일과 중 기도를 접하게 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생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기도의 강제성을 제거하지 못하며, 공립학교라는 국가 기관이 종교적 행위를 조직하고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96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1963년에는 유사하게 메릴랜드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선택에 의해 매일 아

침 성경 10절을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언뜻 보면 두 사건은 단순히 공립학교에서 그 내용 자체도 너무 간단한 기도를 못 하게 하고, 짧은 성경 몇 구절을 읽지 못하게 한 사건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런데 미국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도덕적 지표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1962~1963년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

1962년까지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던 10~14세 사이 성관계에 의한 성병 전염률이 그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또 15~19세 소녀들의 미혼 임신율이 1963년 이전까지 1,000명당 15명 안팎이었다가 그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27명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비율 역시 1960년대 중반까지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였는데, 그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 지표도 1962~1963년을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무신론자와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지표의 급격한 변화는 당시 피임약의 본격적 보급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강화라는 사회적 제도 장치 발달에 기인한 것이지, 종교적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신론자와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전반적인 모든 지표의 악화 변곡점이 1962~1963년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도덕이나 윤리와 큰 관련성 없어 보이는 미국의 SAT 점수조차 1962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내림세를 나타냈다.

단순한 기도문 하나 읽는 것을 중단한 것이 이와 같은 큰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Engel 사건은 미국이 그 사회의 강력한 정신적 영적 토대를 이루던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돌아서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1958년 이후 미국에서 편찬된 생물학 교과서는 진화론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1963년 진화론 중심의 연방 표준화가 학교 현장에 완전히 스며들었다. Engel 사건 이후 학교 시작 전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종교적 언급은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다. 그 자리는 급속하게 세속화된 공교육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진리의 공석은 늘 역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세속적 인본주의가 비집고 들어왔다.

Engel 판결은 종교 박해로 인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온 프로테스탄트들이 지키고자 했던 종교 자유의 개념이 ‘국가가 국교를 강요하지 않음’에서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의미로 변질시켰다. 또한 도덕 교육이 종교로부터 불완전하게 독립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절대적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결국, 이후

미국 사회는 세속 공교육의 고착을 맞게 되면서 성 혁명, 가족 해체, 범죄 증가와 건강한 가정 붕괴의 도미노를 겪게 된다.

데이비드 A. 노에벨은 그의 책 <충돌하는 세계관>에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의 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는 주장의 헌신’이라면서 “‘이것은 기독교적 행동’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길’”이라고 했다. ‘무엇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의 결과를 Engel 사건 이후 미국 사회의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로 한 인간 사회의 결과는 <사사기>에 잘 드러난다. <사사기>는 인간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데로 행했을 때(삿 21:25) 오는 도덕의 붕괴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 사회의 참상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도덕적이고 인간답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배신의 시간이 올 것을 예측이라도 한 듯 여호수아는 절절한 외침을 토해내었다(수 24:15).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미국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년특집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연합의 힘으로 생명의 기적을!

도곡공동체, 경기A공동체, NGO 메디엑세스의 연합사역

“나를 따르라”(마 16:24).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전제한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다. 2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향하기 때문이다.

〈온누리신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난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뜨겁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듣는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연합사역’이다. 도곡공동체, 경기A공동체, NGO 메디엑세스의 연합사역이 생명의 기적을 선물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구순구개열 장애를 안고 있는 키아(Kia)가 도곡공동체와 NGO 메디엑세스의 도움으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 오래된 격언은 함께 가는 힘과 그 끝에 맺히는 풍성한 열매를 일깨워준다. 온누리교회 도곡공동체, 경기A공동체, NGO 메디엑세스 연합사역(이하 연합사역)이 생명의 기적을 선물한 사례도 그것을 증거한다. 함께 손잡은 그 힘으로 절망의 끝에서 있던 열방의 이웃들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을 선물했다.

장 피에르 목사, 새로 얻은 생명과 다짐

장 피에르(Jean Pierre Bassene, 47세) 목사는 무슬림이 90%가 넘는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 아이들을 품고 섬기는 사역자다. 그가 돌보는 아이들은 일명 ‘탈리베(Talibe)’라 불린다. ‘코란을 배우는 학생’을 뜻하는데, 그들의 삶은 참혹 그 자체다. 5~6세 나이에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세네갈 종교 지도자인 ‘마라부’에게 맡겨져 하루 8시간 넘게 피악별 아래서 구걸을 강요당한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란을 외우지 못하거나 정해진 구걸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채찍질이 이어진다.

장 피에르 목사는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마라부의 노예 대신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그의 건강문제로 귀한 사역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처했다. 장 피에르 목사는 말기 신부전으로 “더는 방법이 없다”는 선고까지 받은 상태였다. 도곡공동체 결연 선교사 고운님 선교사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공동체에 전했다. 도곡공동체는 신장이식 수술만이 그의 생명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듣고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도곡공동체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 순간 NGO 메디엑세스가 발 벗고 나섰다. NGO 메디엑세스

스 이사이자 연대세브란스병원 교수 안철민 집사와 고운님 선교사가 장 피에르 목사를 도울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했고, 고대의료원의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저개발 국가 환자 치료 지원 사업)와 연결을 도왔다.

지난해 11월, 장 피에르 목사 아들 에릭이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하고 한국 땅을 밟았다. 공여한 신장 상태가 양호하고, 수술이 잘 진행돼 빠른 회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수술 후 이틀째부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알 수 없는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아프리카 사람 특유의 혈액검사로로는 잡히지 않는 ‘이름 없는 마이너 항체’가 새로운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 위기의 순간, 도곡공동체와 NGO 메디엑세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밤낮으로 중보기도 했다. 의료진은 항체를 걸러내는 혈장교환술을 긴급하게 시행했고, 조금씩 차도를 보였다.

도곡공동체의 사랑과 기도, NGO 메디엑세스의 전문성이 한 생명을 살렸다. 장 피에르 목사는 현재 모든 수술을 마치고 통원 치료를 하면서 회복 중이다. 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 세네갈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도곡공동체와 NGO 메디엑세스를 만난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와 사랑,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 새로 얻은 생명으로 세네갈의 영혼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냈다

필리핀 세부 빈민촌에 사는 12살 소녀 키아(Kia)는 입천장에 커다란 구멍이 난 ‘구순구개

열’을 안고 태어났다. 물 한 모금 마시면 눈과 코로 역류했고, 그로 인해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필리핀의 열악한 의료 수준으로는 키아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며 애통해할 뿐이었다.

지난해 여름, 도곡공동체 세부 아웃리치팀이 키아의 가정을 방문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됐다. 아이의 처참한 사정을 안 이정구 장로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정구 장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방법을 찾았다. 고대의료원과 협력해 무료 수술을 확정했고, NGO 메디엑세스가 여권조차 없던 키아 가족을 위해 신원 보증 및 비자 발급이라는 행정적 벽마저 허물었다. 키아와 가족의 체류비는 도곡공동체가 감당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키아를 맞이한 것은 생전 처음 겪는 한국 겨울의 혹독한 추위였다. 낮은 환경 탓에 지독한 감기에 걸린 키아는 마취조차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자칫하면 수술이 무산될 수도 있었는데, 도곡공동체 성도들이 준비한 겨울옷과 목도리,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키아를 감쌌다. 수술 전날 밤 기적처럼 열이 내려고, 수술은 대성공이었다.

지금 키아는 음식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입천장의 구멍이 완전히 메워졌기 때문이다. 이제 맑은 웃음소리만 남아 있다. 도곡공동체의 긍휼한 마음과 NGO 메디엑세스의 체계적인 지원이 한 아이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냈다. 키아의 엄마 조엘린이 도곡공동체와 NGO 메디엑세스에게 인사했다.

“키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우리 가족이 선택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 같았고, 뚫리지 않는 벽 앞에서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거둬주시고,

벽을 허물어주셨습니다. 키아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자매가 되찾은 선명한 소리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은 종교적 박해가 극심한 곳이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는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노자닌(Nozanin)과 람지아(Ramziya) 자매의 아버지 다윗(가명) 목사는 그 척박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가정교회를 지키는 사역자다. 목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척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윗 목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 노자닌과 람지아는 선천적 청각장애인이다. 2022년,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는데, 자라는 몸과 기계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자닌은 보청기 몰드가 너무 작아서 착용할 수 없었고, 람지아는 인공와우 전선의 접촉 불량으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보청기 점검과 교체를 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였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쉽지 않았다. 어렵게 찾은 소리가 다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매를 짓눌렀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경기A공동체를 보내셨다. 여름 아웃리치로 타지키스탄을 방문했던 박현규 장로가 노자닌과 람지아 자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공장 NGO 메디엑세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NGO 메디엑세스는 초청 및 입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도맡아 진행하며 세브란스 병원 청각재활센터에서 진료 및 검사 일정을 조율했다. 진료비와 체류 비용은 모두 박현규 장로가 기꺼이 감당했다. 경기A공동체는 다윗 목사 가정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성껏 대접하고, 공동체 예배에 초대해 교제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NGO 메디엑세스는 치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카자흐스탄의 전문 센터와 연결해줬다.

노자닌과 람지아 자매의 귓가에 다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경기A공동체와 NGO 메디엑세스 덕분이었다. 자매의 아버지 다윗 목사가 감사를 전했다.

“타지키스탄의 이름 모를 가정을 위해 손 내밀어 주신 온누리교회와 NGO 메디엑세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내밀어 주신 손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노자닌과 람지아가 다시 소리를 찾은 것처럼, 타지키스탄에도 다시 복음이 울려 퍼지도록 생명을 다해 사역하겠습니다.”



연합사역 영상

‘남양주 캠퍼스 선교를 이야기하다’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남양주, 50여 명 참석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남양주’가 지난 1월 25일(일) 오후 2시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 ‘남양주 캠퍼스 선교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막 올랐다. 2000선교본부 리더십 및 봉사자, 남양주온누리교회 선교 담당 리더십, 남양주M센터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광열 장로 대표기도, 변대섭 목사 설교, 김홍주 목사, 김형일 집사, 정재호 집사, 김준태 집사 주제 강의, 조별 토론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김홍주 목사는 ‘온누리 선교’를 주제로 2000선교본부 전체 방향성과 2026년 중점 과제, 캠퍼스 선교 전략을 안내하고, 김형일 집사는 ‘융합 촉매선교와 사례’를 주제로 융합 촉매 선교, 와이미션 대외 사역, 양재 선교사례, 공동체 선교사역자 모임 등을 소개했다. 정재호 집사는 2000선교본부의 조직을 소개했고, 김준



‘캠퍼스 미션콘퍼런스 in 남양주’.

태 팀장(남양주 의료선교팀)은 ‘남양주 선교 현황’을 주제로 선교사역 조직 및 사역을 발표했다. 조별토론에서는 ‘융합/촉매 선교 활성화 방안’, ‘1다락방 1선교 실천 아이디어’, ‘본부-캠퍼스 협력 개선 제안’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2000선교본부가 주관하는 캠퍼스 미션콘퍼런스는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성도들과 온누리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캠퍼스 선교 사례와 아웃리치 성과 등을 나누는 자리다.

문의: 02-795-908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월 화요성령집회 ‘House of Prayer’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2월 화요성령집회가 ‘House of Prayer’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3월 이

서진 목사 ‘믿음으로 기도하라’ (눅 7:1~10), 10일 이서진 목사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삼상 1:9~18), 17일 최대홍 목사 ‘씨름하며 기도하라’ (창 32:22~32), 24일 최성민 목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행 12:5~17)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GN 인기 콘텐츠 연계 굿즈 판매

두란노서점 각 지점

CGN 인기 콘텐츠 굿즈를 두란노서점 각 지점에서 판매한다. 어린이 콘텐츠 ‘바이블북: 성막대작전’ 굿즈 ‘바이블북’ (69,000원), ‘선교마블 기도탐험대’ 굿즈 ‘선교마블 보드 게임’ (35,000원), ‘갯돈’ 캐릭터 굿즈 ‘양순이 키링’ (10,000원) 등이다. 어린이 성경 교육부터 선교 비전 교

육, 전도용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패키지’ (100,000원)도 판매한다. 영상, 도서, 지도 등이 포함된 풀세트다. 판매 수익금은 선교 미디어 CGN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2-3275-9303

/ 박지혜 기자

경배와찬양 큰잔치 ‘복음에 합당한 삶’

2월 12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초교과적 국제 선교단체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ANM: All Nations Worship&Praise Ministries, 이하 경배와찬양) 창립 40주년 기념 집회를 개최한다. 2월 12일(목)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마흔 번째 해맞이 경배와찬양 큰잔

치’가 열린다.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 (벧 1:27, 29)이다. 하스데반 선교사와 경배와찬양 국제사역팀이 예배를 인도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및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생중계한다.

문의: 02-796-9700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육원 아동에게 부모의 사랑을!

열린울타리 ‘보육원 아동 결연 가정’ 모집

사회선교본부 온누리울타리 소속 열린울타리에서 ‘보육원 아동 결연 가정’을 모집한다. 열린울타리는 보육원 아동과 가정을 결연해서 아이들에게 가정을 경험시키고, 부모의 사랑을 전하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팀이다.

보육원 아동 결연 신규 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동체 순예배 참석,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 QT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다.

신규 가정은 열린울타리 정기예배 2회 이상 참석, 사역신청서 제출, 오리엔테이션 수료, 인터뷰 등의 과정

을 거쳐 선발한다. 부부 모두 신앙을 가진 성도여야 하고, 싱글 가정도 지원할 수 있다. 결연 가정으로 선발되면, 정기예배에 참석하고, 월 1회 이상 보육원 결연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보육원의 사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창화 팀장(온누리울타리)은 “보육원 아동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조차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전해줄 가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의: 010-6749-0885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과테말라 산간 마을에 ‘총체적 선교’ 모델 정착

NGO 더멋진세상이 과테말라 산간 마을에 ‘총체적 선교’ 모델을 정착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과 허리케인 ‘에타(Eta)’로 고립된 과테말라 산 안드레스 오수나(San Andres Osuna) 인근 산간 마을에 긴급 식료품을 지원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전기와 식수 시설이 전무하고, 차량 접근조차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다.

NGO 더멋진세상과 배형근 선교사는 이 마을에서 ‘지역사회보건전도(CHE, Community Health Evangelism)’를 실시하고 있다. ‘CHE’는

복음 전파와 함께 보건, 교육, 지역 개발을 통합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총체적 선교’ 모델이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결과, 수혜자였던 주민들이 마을의 주체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리와 병원, 가로등 등을 주민들 스스로 설치하는 것을 꿈꾸며, 그 소망을 담은 노래를 제작했다. 주민들이 제작한 노래를 QR 코드로 들을 수 있다.

올해 NGO 더멋진세상은 가정 회복 중심의 통합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걸어서 이스라엘’ 시즌2 첫 공개

2월 3일 기독교 OTT ‘풍당’, CGN TV, 유튜브

CGN 성지순례 콘텐츠 ‘걸어서 이스라엘’이 시즌2로 돌아왔다. 2월 3일(화) 자정 기독교 OTT ‘풍당’에서 첫 선을 보인다. 같은 날 오전 7시 30분 CGN TV, 오후 5시 CG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걸어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유진상 교수(히브리대 한동글로벌센터 책임)와 아들이 함께 성경 속 이스라엘을 탐험하는 성지 체험 브이로그

(Vlog) 콘텐츠다. 지난해 7월 처음 공개됐다. 시즌2에서는 이스라엘 탐험에서 더 나아가 대속죄일, 초막절, 수전절 등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들을 오늘날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소개한다. 시즌2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엔게디’를 주제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을 다룬다.

/ 박지혜 기자

회복사역 ‘엘라이프’ 참가자 모집

2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 오전 10시

회복사역본부 ‘엘라이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28일(토)부터 4월 11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2월 25일(수)까지 아이스콜과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9만 원(매주 차인

바디,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비용 및 리트릿 비용 포함).

엘라이프는 40일 동안 감사, 운동, 기도, 음식, 기쁨 등 다섯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이다.

문의: 02-3215-3532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장로칼럼

은퇴, 그리고 다짐



임현태 장로
(남양주온누리교회)

우리 교단의 ‘시무장로’는 만 70세가 되는 해에 직임을 내려놓고, ‘사역장로’라는 새로운 직임을 받는다. 소위 말하는 ‘은퇴’를 하는 것이다. ‘은퇴’라는 말은 영어로 ‘retire’인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불어의 ‘르퇴레(retirer)’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뒤로, 다시(re)+물러서다(tirer)’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자어 ‘은퇴(隱退)’ 또한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적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retire’를 ‘re-tire’라는 동음이음어로 풀어서 ‘타이어를 새로 장착하듯 더 힘차게, 더 멀리, 더 열심히 사역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은퇴를 앞두고 여러 사람이 찾아와 묻곤 했다.

“은퇴하시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때마다 나는 “은퇴는 물러나서 한가히 지내는 것인데 질문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되묻곤 했다. 그러다 문득 ‘은퇴(retire)’라는 표현 대신 ‘졸업(graduation)’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가 끝을 의미한다면, 졸업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의 ‘re-start’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이다. 장로는은퇴식보다 ‘시무장로 졸업식’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이재환 선교사님이 소리 높여 외치시던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 있다.

“선교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시다.”

비록 시무장로의 직임은 졸업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일을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다 가기를 소망한다. 은퇴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대답도 바로 이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인지는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그 위에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느냐가 불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12년 전 장로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100자 소감문을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되, 그 공적을 불로 시험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더라도 타지 않은 조그만 조약돌 하나가 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이 고백을 다시 떠올리면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묻게 된다. 이제 사역장로로서 앞에서 이끄는 것보다 뒤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에 서고자 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탈북민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싶다. 크고 눈에 띄는 성과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일을 하며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게 소망이다.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동역해 준 모든 분, 특히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 준 가족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다시 출발선에 서서 꽃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권사칼럼

‘꽃과 천사’라는 찬사를 듣는 길



조승옥 권사
(서초B공동체)

AI에게 ‘호스피스 봉사자’에 관해 물었더니 ‘호스피스의 꽃’, ‘천사’라 부른다고 했다. ‘내가 언제 어디서 꽃이나 천사라는 찬사를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호스피스 봉사자가 되는 길이였다.

나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어느덧 여든이 된 모태 신앙인이다. 일흔아홉 되신 천정어머니는 “승옥아, 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나중에 만나자”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천국으로 떠나셨다. 남편은 20년 동안 중풍으로 연단을 받으며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여보, 당신은 3년만 더 살고 와”라는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이사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보다 많아진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저제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지낸 지 벌써 7년 되었다. 땅에 두고 갈 남편의 신앙이 걱정되어 “나보다 앞선 믿음을 보게 하시고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왔는데, 그기도 또한 이루어져 감사가 넘친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지, 죽음의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자 ‘온누리호스피스’의 문을 두드렸다. 죽음과 함께 닥칠 극심한 고통, 그로 인해 변해 갈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할 가족들, 과연 내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온누리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를 안심시킨 것은 한결같이 밝고 기쁨으로 섬기는 스테프들이었다. 강의를 통해 죽음

을 고통과 절망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안내받았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며, 호스피스의 핵심 사상이 ‘생명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다. 그렇게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곳이 호스피스 교육이자 봉사임을 깨달았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평강 가운데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온누리호스피스 교육만 받고 봉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팀장님과 조장님, 부조장님이 용기를 주셨고, 문득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다.

“사명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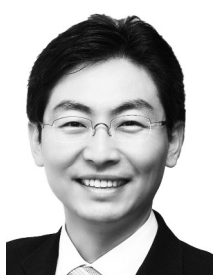
‘아! 나에게도 사람답게 살라고 사명을 주시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에 떠밀리듯 봉사현장으로 나갔다. 나는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왔기에 병원이 낯선 곳은 아니었지만, 호스피스 봉사자로서는 처음이어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러나 봉사팀에 소속되면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이제는 온누리호스피스를 고민하는 분들께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봉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라도 그 기회를 꼭 붙들기 바란다.

나는故 하용조 목사님을 생전에 뵈는 적은 없지만, 최근 CGN에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죽음 준비는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용기 있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공동체)

2026년 온누리교회 표어가 ‘나를 따르라’이다. 거기에 작은 부제가 붙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다름 아닌 ‘자기’, ‘나 자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심리학 용어로 ‘에고(ego)’를 말한다. 에고는 우리 삶 주위에 둘러친 일종의 방어막과 같은 것이다. 에고는 늘 두려움에 차 있고 항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꼭 움켜쥐고 있다. 그것은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매우 경쟁적이어서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물론 자기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도권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 즉,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에고이다. 마귀 사단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위험한 적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다. 내부에 있다. 신앙 영성의 핵심은 사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자아(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다. 예수님이 자기가 달려 죽으실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흔히들 자기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문제를 자기 십자가로 해석한다. 전 생애 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실패한 삶이 만들어 낸 무거운 짐

들을 십자가로 보는 것이다.

“주님, 저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오니 잘 지고 가도록 도와 주세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

“너희가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와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얻게 된 무거운 짐일 뿐이다.”

거짓된 짐과 십자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거짓된 짐은 우리 스스로 만든 삶의 어려움이다. 내 욕심과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쌓아놓은 쓰레기 같은 일들이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며 늘어 가게 한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멍에를 대신 메라고 말씀하신다(마 11:28-30).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이나 무겁고 두렵기까지 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짐을 주고, 삶을 가볍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헛된 짐을 내려 버리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게 할 사명의 짐이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짐이다. 이것을 받을 때 곧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종결된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짐은 무척 무겁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볍고 마음에 안식을 준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겉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적으로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걱정 없이 헌신하면 된다. 율 한해, 기쁜 마음으로 새롭게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소망한다.

제1575호 | 2026년 2월 1일(일)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가곡읍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2)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항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635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옥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사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경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팔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6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3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글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u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DA DAIA -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옥환 노규석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래유 김미정
김상규 김상수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운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상 김희철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대광 김대용 김태완
김찬규 김 현 김현실 김성욱
노치형 럼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 박성연 박성현
박진중 박철웅 박대영 박형준
배순양 배현삼 배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철
신경훈 신대중 신원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윤대리
오현고 유진아 유현목 박지혜
윤이삭 유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하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진범 장재원 정지훈
전병현 전진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성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래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조바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주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석희 하정훈 한화수 한총희
해탈도김 하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옥환 노규석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래유 김미정
김상규 김상수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운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상 김희철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대광 김대용 김태완
김찬규 김 현 김현실 김성욱
노치형 럼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 박성연 박성현
박진중 박철웅 박대영 박형준
배순양 배현삼 배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철
신경훈 신대중 신원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윤대리
오현고 유진아 유현목 박지혜
윤이삭 유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하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진범 장재원 정지훈
전병현 전진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성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래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조바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주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석희 하정훈 한화수 한총희
해탈도김 하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옥환 노규석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래유 김미정
김상규 김상수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운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상 김희철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대광 김대용 김태완
김찬규 김 현 김현실 김성욱
노치형 럼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 박성연 박성현
박진중 박철웅 박대영 박형준
배순양 배현삼 배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철
신경훈 신대중 신원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윤대리
오현고 유진아 유현목 박지혜
윤이삭 유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하규 이형목 이호준 임용성
장동원 장진범 장재원 정지훈
전병현 전진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성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래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조바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주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석희 하정훈 한화수 한총희
해탈도김 하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정진모 제인랑 최선재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병주 고우리 구길모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지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켈 서영철 서아미혜
양현주 위영혜 에리 마이클 스톨츠
이인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진익 이진숙 임진숙

“교회 소유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회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배경을 성도님들과
투명하게 나누고자 함입니다.

▶매각 추진 배경 및 취지

첫째, 저효율 부동산은 교회 사역과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 활용 용도가 거의
없어 사역을 위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저효율 부동산은 자산가치 대비 높은
관리비(세금 포함)로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교회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사역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씀

첫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져 왔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저효율부동산의 매각은 “자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매각이 교회의 자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적 안정만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장 가치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회와 재정위원회, 기타 전문가들의
검토와 기도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셋째, 모든 매각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온전하게
진행되어 위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선교재단 & 복지재단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

[매각 입찰 공고 물건]

- 물건 1.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89외 27필지, 건물 2개동
- 물건 2.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234외 27필지, 건물 5개동
- 물건 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00외 1필지
- 물건 4.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049-1외 2필지, 건물 2개동

- ▶매각 입찰 일정 : 공고 25.12.06 ~ 26.02.06 / 입찰서제출 26.02.03 ~ 26.02.06
- ▶매각 세부 절차 및 명세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조
- ▶매각 주관 : 온누리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 ▶일반 문의 : 온누리선교재단 자산관리팀 (02-3215-3134, 3136)